

진안 무거마을 정주여건 개선 탄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국비 18억2000만원 확보

진안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마을사업)'에 정천면 무거마을이 선정돼 18억 20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무거마을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는 마을 주민들의 남다른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봉규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취약한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의견 수렴 및 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고, 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전을 벌여 치열한 경쟁

을 뚫고 최종 지원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거마을은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를 위한 주택정비사업과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 안전사고방지, 재래식 화장실정비, 마을공동시설 현대화를 위한 생활·안전 인프라 사업, 마을안길 및 답장 정비를 위한 마을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건강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비율이 매우 높고, 농촌지역 실정에 맞아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인 앞서 동향면 상·하양마을 37억원, 성수면 원구신마을 16억원, 진안을 군상리 40억원, 진안을 내·외사양마을 15억원, 동향면 하노마을 15억원, 백운면 상백마을 15억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 바 있다.

전춘성 군수는 "앞으로도 국가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선정된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추진해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발령

장수군, 관련 종사자 대상 사전 예방·예방수칙 강화 위해

장수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사과, 배 등 과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한 △과수 농업작업자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방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권장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14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 28일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약제 지원, 정기예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예찰·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대상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을 준수해 사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예방약제를 철저히 방제해주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과수과(063-350-2850)로 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6세대 선정 세대 당 600만원

무주군이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총 6세대를 선정해 세대 당 600만 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노후·불량지붕 개량, △보일러 등 난방 시설 교체, △주방·화장실 보수, △기타 벽면 수리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노후 단독 주택(부기등기 가능)의 수리 예정자로, 단독 주택의 대지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등

시에 건축 연 면적이 150㎡이하인 주택이며 부기등기가 가능해야 한다.

단,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창고 개보수나 담벼락, 대문 설치 또는 수리,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마당조성, 가구·비품류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과 아파트,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미등기, 근저당 및 압류 설정된 주택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신청·접수일은 오는 25일까지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

차 계약서를 제출(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해야 한다.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외에도 ▲건축설계비와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임시기거주 임대료 지원, ▲정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도 2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인 유입을 촉진시키고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무주살이가 좀 더 편하고 수월해질 수 있도록 지원책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읍 착한가게 22호점 '샤브한쌈'

무주읍 무주읍은 14일 착한가게 22호점 탄생을 알렸다. 착한가게는 매달 일정 금액(월 3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22호점의 주인공은 무주읍 소재의 '샤브한쌈'이 됐다.

이윤희 대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불안한 때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나눔이 내일을 위한 큰 희망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착한가게'는 지난 2016년부터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무주



을 22개 업체를 비롯해 6개 읍면에서 총 56개 업체가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착한가게 참여는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의원 등 모든 업종에서 가능하며 착한가게에서 기부하는 성금은 각 읍면 맞춤형복지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와 의료,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강춘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착한가게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5천여만 원으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을 돕는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며 "착한가게가 기부문화를 확산·정착해 주실 바라는 마음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착한가게 관련 문의는 무주군 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을 비롯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021년 벼 병충해 피해복구 지원

진안군이 지난해 발생한 벼 병충해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벼 병충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720농가(피해면적 445ha)로 예비비(군비) 포함 3억8천만원 규모다.

지난해 진안군은 벼 출수가었던 8월 말 경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일조시간 부족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이삭도열병 등이 확산되어 이례적으로 약 445ha에 달하는 대규모 벼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

올 2월, 전북도의 벼 병해 피해가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진안군은 진안군의회와 협의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함으로써 피해복구비를 빠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720농가 중(피해면적 445ha) 516농가(피해면적 365ha)는 국

고지원을 받고, 피해를 30%미만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204농가(피해면적 80ha)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진안군에서 자체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별 지원규모는 피해정도를 계산한 재난지수에 따라 다르며, 농가별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해복구비는 농업이 주 생계수단인 피해 농가별로 지급되며,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병충해 피해로 인한 벼 생산량 감소와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크게 상심했을 농민들에게 이번 재해복구비 지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보통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진안군이 국도 26호선 진안→전주 구간에 위치한 금남정맥(보통재) 생태축 복원사업에 나선다.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로 예정된 이번 복원사업은 국도 26호선 도로개설로 단절된 금남정맥(보통재)을 복원해 산림생태계 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주변 자연과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산림복원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도 함께 증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을 복원사업에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이질감 없는 생태축 복원사업에 나설 계획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군은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산림 회복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진안군은 사업 기간 동안 공사로 인한 국도26호선 진안→전주 구간(소태정 정상 부근)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으로 해당 구간을 지나갈 때 특히 안전운전을 해주도록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임도·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추진

무주군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임도와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펼친다. 붕괴 우려가 높은 사면과 옹벽, 석축 등 산림재해 취약시설물을 집중 점검, 산사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무주군 관내 임도 및 산사태 취약지역 132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임도관리원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편성하고 산사태 취약지역과 임도사면의 낙석 붕괴지 등의 점검을 진행, 생활권 주변 재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임도사면 붕괴 및 토사유출 점검을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 접근 제한 표지(안전띠 등) 설치, 붕괴 시 보완 시공을 통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